



27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개인전에서 장민희가 금메달, 안산이 동메달을 획득했다(왼쪽). 리커브 남자개인전에서 김우진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양궁연맹 인스타그램

‘도쿄 3관왕’ 광주여대 안산 최고 기량 재확인

단체·혼성 금 이어 개인전 동 3관왕 놓쳤지만 최강 실력 뽐내 장민희 금·김우진 개인전 금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광주여대 안산이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최강 실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남녀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뤘다.

안산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리커브 여자 개인전 준결승에서 케시 코폴드(미국)에 2

-6(28-29 28-29 28-27 24-28)으로 겨 메이저 2개 대회 연속 3관왕 등극이 무산됐다.

안산은 이어진 3-4위 결정전에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6-4(26-28 29-29 30-29 28-28 30-29)로 돌려세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금메달은 한국 몫이었다. 장민희(인천대)가 생애 처음으로 나선 세계선수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장민희는 케시 코폴드를 6-0(29-27 28-27 29-26)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2015년 코펜하겐 대회의 기보배(광주시청) 이후 끊겼던 여자 개인전 금맥을 6년 만에 다시 잇는 우승이었다.

안산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며 “언니들 덕분에 단체전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최고의 언니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습때도 그렇고 정말 즐겁게 단체전에 임한 기억이 많아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화이팅”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남자개인전에서도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마르쿠스 다우메이다(브라질)를 7-3(29-26 29-28 27-30 28-28 29-27)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김제덕(경북일고)은 남자 8강에서 미국의 베테랑 기사 브래디 엘리슨에게 0-6(27-28 29-26-28)으로 탈미를 잡혔다.

앞서 김우진과 안산이 나선 혼성 단체전(혼성전)과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모두 가져온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 금메달까지 수확,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다.

세계선수권에서 한 나라가 금메달을 싹쓸이한 것은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에도 한국이 다 가져왔다.

혼성전이 도입돼 금메달 수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2011년 토리노 대회 이후만 놓고 보면 이번이 대회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다.

김우진은 혼성전과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 금메달까지 획득해 3관왕을 이뤄냈다.

세계선수권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 3개를 가져간 것은 남녀를 통틀어 김우진이 처음이다. /최진화 기자

김우진은 2011년 대회와 2015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오른 바 있는데, 이들 대회 혼성전에는 김우진이 아닌 다른 남자 선수(2011년 임동현·2015년 구본찬)가 출전했다.

한국 양궁은 리커브 금메달 5개를 싹쓸이하고 개인전 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 최상의 성적을 내며 대회를 마쳤다.

다만 컴파운드에서는 혼성전 동메달 1개를 따내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 컴파운드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수확하지 못한 것은 2013년 벨레크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양궁 대표 선수들은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최진화 기자

“우승은 언제나 특별한 일”

최경주 PGA 챔피언스투어 제패 50세 이상 한국인 첫 승 기록 최근 2주간 상금 5억5천만원

완도 출신으로 광주대학교를 졸업한 ‘코리안 탱크’ 최경주(51)가 10년 4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주관 대회 정상에 오른 뒤 “우승은 언제나 매우 특별한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최경주가 미국 무대에서 우승한 것은 2011년 5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로 범위를 넓히면 2012년 10월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거의 9년 만이다.

최경주는 이날 우승을 확정짓고 기자 회견에서 “2011년 이후 첫 우승이라 꼭 우승하고 싶었다”며 “기도도 열심히 해서 마음이 편했다. 챔피언스투어 첫 우승의 꿈을 이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2년 컴팩 클래식에서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따낸 그는 50세 이상이 뛰는 챔피언스투어에서도 한국인 첫 승 기록을 남겼다.

그는 “2002년 처음 우승할 때가 어려웠다”고 회상하며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승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게 된 것 같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최경주는 최근 몸 상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연습도 더 많이 하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 허리 쪽

에 통증이 있었다”며 “2년 전에는 병원 신세도 지며 더 안 좋아졌다”고도 덧붙였다.

최경주는 2018년 8월 갑상선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체중이 10kg 이상 빠진 모습으로 국내 대회에 나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당시 ‘최경주가 암 투병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그는 챔피언스투어에서 활약

하는 50세 이상 선수들에 대해 “여전히 몸 상태나 기술, 파워 등이 좋다”며 “(64세인) 베른하르트 랑거도 여전히 멀리 치고 점수 관리도 잘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지난주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한 최경주는 최근 2주 사이에 챔피언스투어에서 우승, 준우승을 기록하며 상금 47만4,000달러(약 5억5,000만원)를 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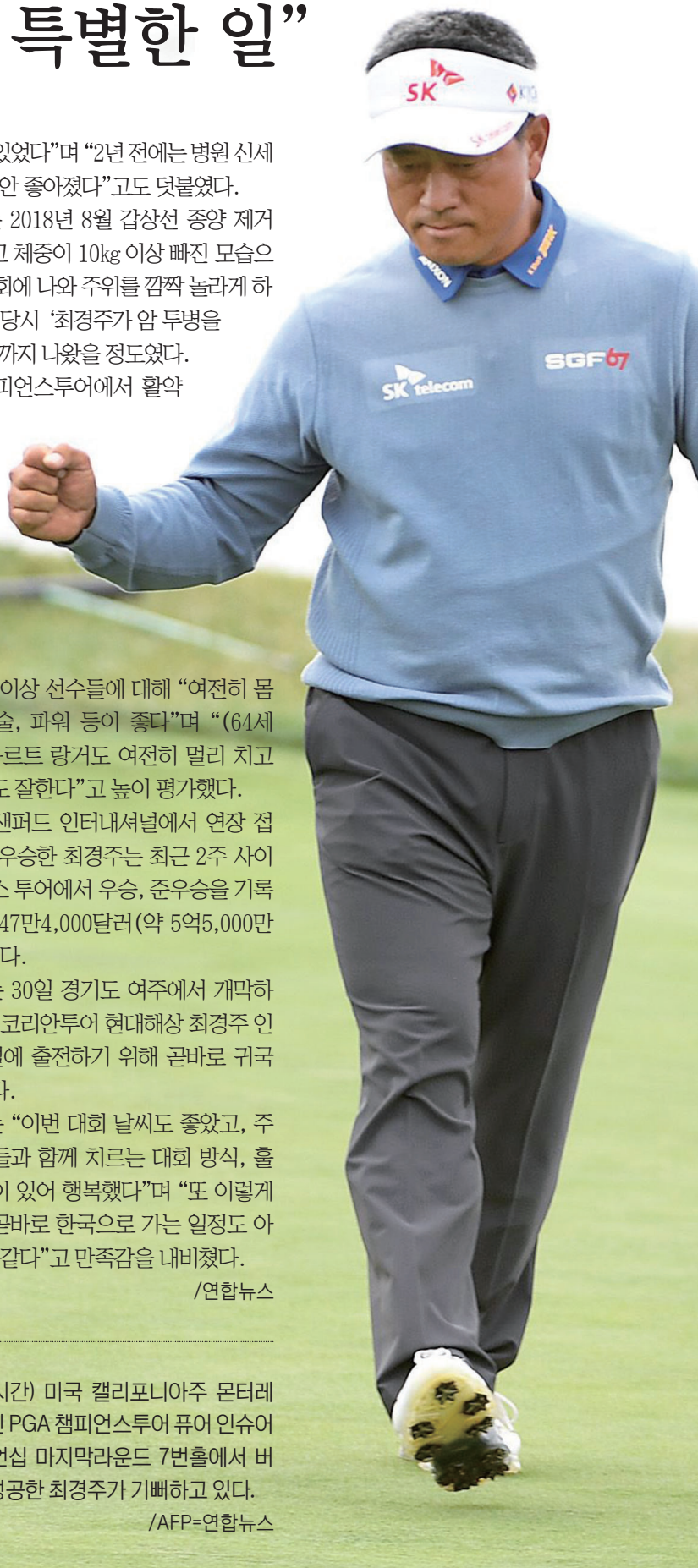
최경주는 30일 경기도 여주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아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기 위해 곧바로 귀국 길에 오른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날씨도 좋고, 주니어 선수들과 함께 치르는 대회 방식, 훌륭한 팬들이 있어 행복했다”며 “또 이렇게 우승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일정도 아주 좋은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마지막라운드 7번홀에서 버디퍼트에 성공한 최경주가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남 생활체육·어르신 대축전 취소 결정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여파

전남도체육대회에 이어 제33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제16회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 주요 체육행사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최종 취소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3-24일 긴급 제36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개최, 오는 10월 25-27일과, 28-29일 보성군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33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및 제16회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지난 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취소한 바 있는 전남체육회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추석 연휴 이후 2,000명대의 일일 확진자 숫자를 기록하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전남 도내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

호인들의 최대 화합축제인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개최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동안 전남체육회는 전남도, 개최지인 보성군과 협의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려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생활체육대축전과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36차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김재우 전남도체육회장은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게 돼 아쉽지만 지역사회의 안전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우려돼 어렵게 결정한 만큼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와 제5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역시 취소됐다.

/최진화 기자

광주대 출신 김봉수 U-23 축구 대표팀 발탁

광주대학교 축구부가 조규성(김천 상무)에 이어 또한명의 태극전사를 배출했다.

27일 광주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대의 U리그 권역 우승을 이끌었던 김봉수(제주 유나이티드)가 황선홍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에 발탁됐다.

2021년 신인 계약을 통해 제주유나이티드에 입단한 김봉수는 지난 2019년 광주대의 U리그 권역 우승을 이끌며, 한국대학축구연맹 우수선수상을 받은 유망주다. 특히 지난 25일 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리그 3호 골을 터트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대표팀 주전 경쟁에 정진호를 밝혔다.

광주대는 지난 8월 축구부 출신인 조규성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2경기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첫 태극마크를 단테 이어 김봉수가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는 경사를 맞았다. 김봉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을 앞두고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 중이다. /최진화 기자

